

'97 電機工業 완만한 성장

전기업계의 내년도 경기는 완만한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하반기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한국전기공업진흥회가 회원사 1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97년도 전기공업 경기는 금년 보다는 다소 호전된 경기양상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의 경우 내수침체 및 설비투자 부진 등 둔화된 경기 흐름이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 생산 증가율 11.2%보다는 다소 신장된 14.0%의 성장이 전망되며, 생산 가동률도 금년 평균가동률 82.8%보다 높아진 85.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내수경기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의 적극적 개척과 수출 마케팅 강화에 힘입어 금년 20.0%의 증가율을 보인데 이어 '97년도에도 동남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수출물량 증가와 서남아·중동 및 남미 등지로의 수출선 다변화로 금년 증가율을 상회하는 21.6%의 신장이 예상된다. 특히, 중전기기의 수출형태는 자체상표 수출액이 전체 94.2%인 반면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 방식) 수출은 5.8%로 대부분 자사 브랜드로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7년도 설비투자는 국내 경제의 성장세 둔화등 경기 불투명 여파로 투자의욕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보다는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시설투자 부문에서 감소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전업계의 '97년도 시설투자는 금년보다 14.8%가 감소한 3천9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술개발투자는 금년대비 11.5% 증가한 1천3백억원을 투자할 예정이어서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인력수급면에서는 당초 고용계획에 약간 못 미치는 실적을 보여 중전업체도 인력수급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97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수준의 인력을 채용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경기여건에 따라 내년도 중전업계의 영업전망은 금년 전망치 14.8% 보다는 약간 높아진 16.2%증가한 6조원 규모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따른 순 이익액도 금년대비 19.7% 증가한 1천1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년 하반기중 할당관세 적용대상인 멀치, 종란, 오르토아미노 페놀, 고속도공구강 등 4개 품목의 경우 관계부처에서 적용대상으로 요청하지 않았거나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해 내년 상반기중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내년 상반기중 할당관세 적용 대상품목들은 87개로 금년 하반기중 적용대상인 58개에 비해 무려 29개 늘어났다.

한편 조정관세 부과 대상품목들은 내년부터 1년 단위로 지정, 부과되는데 내년 한햇동안 조정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으로는 오징어, 새우젓, 참치통조림, 홍어, 조제팔, 모피의류, 니트, 남성의류, 여성의류, 브라우스, 완구 등 11개 품목이 새로 추가됐다.

반면 금년 하반기중 조정관세 부과대상인 매트류, 나일론 필름, 안경렌즈, 콩치, 생사 등 5개 품목이 내년중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내년중 조정관세 부과대상은 금년 하반기중의 33개에서 44개로 11개 늘어났다.

이같은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정관세 부과 대상품목들은 금년말 이전에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부과된다.

다만 할당관세 적용을 통한 관세무세화 대상인 비경합기초원자재 10개 품목의 경우 이미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 할당관세 적용 대상품목 (전기관련)

관세율표번호	품 명	규 격 등	세율(%)	한계수량
2812	비금속의 할로겐 화물 과 산화할로겐 화물	설과 헥사플로라이드 (sulfur Hexafluoride 에 한한다.)	4	258메트릭톤
7225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 연제품(폭이 600밀리미 터 이상의 것에 한한 다.)	규소전기강의 것에 한 한다.	4	수입전량
7226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 연제품(폭이 600밀리미 터 미만의 것에 한한 다.)	규소전기강의 것에 한 한다.	4	수입전량

전기제품의 안전기준 강화 -기술품질원, 내년 2월부터-

전기절연물에 대한 시험방법과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중소기업청 산하 국립기술품질원은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아래 전기절연물에 대한 시험방법과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새로 마련하고 오는 97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절연물생산업체 또는 전문판매업자가 직접 절연물에 대한 시험을 거친후 절연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심사제를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국립기술품질원의 이같은 방침은 수입자유화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저질 전기제품의 수입을 억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다 따른 것이다.

미국(UL마크) 일본(전기용품기술기준) 캐나다(CSA)등 선진각국에서는 전기절연물에 대한 시험을 IEC(국제전기기술 위원회)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실시해 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업계의 부담과 시험기관의 준비기간을 감안, 미뤄 왔었다.

◇단계별 시험항목

△1단계(97년 2월예정) 불에 타는 정도를 알아보는 난연성시험(플라스틱재질의 전기제품)

△2단계(98년 1월)내열성(열가소성합성수지를 사용한 전기제품)

△3단계(2001년 1월) 내구수명을 4만시간으로 보고 이를 보증할 수 있는 절연물사용 의무화, 사용 온도상한치시험(모든 절연물)

쓰는만큼 환경파괴 아끼만큼 환경보호